

지하련 소설의 현실 인식과 젠더 전략

최병구*

|| 차례 ||

- I. 사회주의에 젠더 기입하기
- II. 여성 연대 서사에 나타난 ‘사랑’
- III. 자연과 동정, 여성 사회주의자의 현실 인식
- IV. 계급과 젠더의 연결을 위해

【국문초록】

이 글은 식민지 시기 지하련 소설에 나타난 현실 인식과 젠더 전략을 살펴보고 있다. 먼저 「결별」, 「가을」, 「산길」을 ‘여성 연대’의 서사라는 시각에서 분석했다. 이들 작품은 부부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여성들이 남성을 공유하며 여성 연대를 추구한다. 소유에 기반 한 부부 관계가 아니라 개인의 특이성을 연결하는 사랑을 통해 가족 이데올로기를 내파하려는 것이다. 「채향초」, 「종매」, 「양」에서는 문명/자연의 이분법에 갇혀 있는 남성 사회주의자를 동정하는 여성에 주목한다. 이들 작품에서 발견되는 여성의 동정은 제국 일본의 이분법적 현실 인식과 구조적 유사성을 가진 남성 사회주의자의 인식 구조를 비판적으로 환기하며, 공/사 분할을 재구축하려는 시도이다. 이처럼 지하련은 여성 주체의 일상에 주목하며 제국-남성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어 : 지하련, 임화, 동정, 가족 이데올로기, 자연, 공적영역, 사적영역

* 경상국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I. 사회주의에 젠더 기입하기

식민지 시기 카프 작가의 감성과 혁명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1920년대 초중반 슬픔, 분노, 우정 등과 같은 감정이 혁명에 대한 열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비교적 분명해졌다. 또한 이런 경향성이 1920년대 초중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운동가들과의 협력 관계 속에 카프 시기 내내 이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¹⁾

하지만 주체의 감정이 혁명에 대한 열의를 추동하며 실천으로 나아갔다는 도식에서 흔히 간과되었던 것은 ‘젠더’에 대한 인식이다. 남성 작가들이 창작한 소설과 비평에서 젠더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간의 카프 연구에서 사회주의와 페미니즘의 깊은 연관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경애 등 카프 계열 작가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주의와 젠더의 역학 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사회주의와 젠더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로까지 확장되지 못했다.

1) 식민지 시기 프로문학과 감성과 혁명의 상관성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손유경, 『프로문학과 “감각”의 문제: 김기진의 ‘감각의 변혁론’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32집, 민족문학사학회, 2006; 강용훈, 「1900~1920년대 감각 관련 개념의 사용 양상 연구 - 김기진 비평에 나타난 ‘감각’ 개념에 대한 재인식과 관련하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4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2; 최병구, 「신체의 유물론과 프로문학 - 1927년 『조선지광』의 유물논쟁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53집, 민족문학사학회, 2013; 황지영, 「분노의 조직과 혁명으로서의 이행 - 1920~1930년대의 프로문학과 그 운동을 중심으로 -」, 『이화어문논집』 제44집, 이화어문학회, 2018; 김지아, 「1920년대 프로문학에서 ‘감각’의 의미와 변용 - 김기진 초기 비평 텍스트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74집, 현대문학연구학회, 2021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주의자의 젠더 인식이란 단순히 여성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이분법적 구조가 구축되는 경제적/심리적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환기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사회주의와 페미니즘의 통합을 시도했던 도나 해러웨이의 논의는 많은 참조점이 된다. 그녀는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노동자 정체성에 기반해서 여성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정작 ‘여성’이 갖는 함의에 대한 인식이 실종되었다고 지적한다. 남성 중심의 노동과 경제 활동에서 차별받는 여성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지만, 근대의 이분법적 현실 인식 구조에 대한 논의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여성의 노동력을 사적 영역으로 밀어 넣으며 성장한 근대 사회의 구조에 대한 인식이 요청된다는 것이다.²⁾ 그녀의 시각을 통해 우리는 사회주의와 페미니즘의 결합이란 물리적 성으로 소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기술의 변화 과정에서 비가시적 세계에 존재한 주체들을 현실로 끄집어내며 기존의 이분법적 현실 인식의 구조를 비판적으로 환기하는 사고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주의자의 현실 인식이란 계급과 젠더가 교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간의 계급 인식이 자본의 소유 여부로 경계를 나누는 것이었다면, 계급과 젠더가 교차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현실 인식이란 자본의 소유 여부와 함께 인종·성별 등과 같은 문화 현실을 포괄하는 것이다. 계급 인식이 자본가/노동자라는 분할에 머무른다면, 젠더 인식은 자본가/노동자로 소급되지 않는 일상에 주목한다. 다

2) 도나 해러웨이, 황희선 옮김, 『해러웨이 선언문』, 책세상, 2019. 도나 해러웨이의 논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식민지 시기 논의와 결을 달리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비록 이 글에서 테크놀로지의 문제는 다루지 못했지만, 1940년대 총력전 체제 하 기술의 문제에 대해서는 꽤 많은 논의가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주의와 페미니즘 논의에 집중하며 과학기술과의 연계성은 추후 논의를 기약하고자 한다.

시 말해 계급과 교호하는 젠더 인식이란 여성이 사적 영역에 결박된 사실과 여기에 뿌리 내린 경제 구조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여성에게 특정한 감정과 사고를 부여하는 권력의 전략을 확인하는 일이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꼭 여성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여성 작가를 통해서야 비로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지하련에 주목한다. 지하련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최정희를 중심으로 한 여성 문인들과의 교류를 토대로 일제 말기 소설에 나타난 연애와 사랑의 서사를 분석한 것이다.³⁾ 이들 연구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다른 여성의 삼각 구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1940년대 초반 지하련 소설의 서사구조가 함의하는 진보와 제국주의, 그리고 젠더의 역학관계를 분석했다. 두 번째는 지하련의 대표작 「도정」을 중심으로 해방 국면에서 민족과 진보의 시각을 질문한 글이다.⁴⁾ 이들 연구는 이태준의 「해방전후」와 비교하며 해방기 사회주의자들의 반성과 성찰의 텍스트로 「도정」을 살펴본다. 시기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하련 소설에 대한 연구는 남성 중심의 사회주의 문화 운동이 곧 진보적 민족 문학의 좌표로 간주되던 관습에 대한

3) 김주리, 「신여성 자아의 모방 욕망과 다시쓰기의 서사전략」, 『비평문학』 제30집, 한국비평문학회, 2008; 박찬효, 「지하련의 작품에 나타난 신여성의 연애 양상과 여성성」, 『여성학논집』 제25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8; 서영인, 「제국의 논리와 여성주체 - 이선희, 지하련의 소설을 중심으로」, 『배달말』 제55집, 배달말학회, 2014; 서승희, 「식민지 여성 작가의 글쓰기와 여성성의 표상」, 『한국문학논총』 제72집, 한국문학회, 2016; 손유경, 「여류의 교류 - 식민지 조선에서 전위가 된다는 것(2)」, 『현대문학연구』 제51집, 현대문학회, 2017.

4) 권성우, 「해방 직후 진보적 지식인 소설의 두 가지 양상」, 『우리문학연구』 제40집, 우리문학회, 2013; 손유경, 「해방기 진보의 개념과 감각 - 지하련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49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이민영, 「발화하는 여성들과 국민 되기」,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7집, 한국근대문학회, 2016.

문제 제기라는 큰 틀을 공유한다. 요컨대 남성 중심의 사회주의 문화 운동을 재고하는 주체로서 지하련의 서사 전략을 살펴본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문제는 사회주의자로서 지하련의 젠더 인식에 대한 것이다. ‘진보’ ‘신여성’이라는 키워드가 지하련의 소설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키워드임은 분명하지만, 사회주의라는 정체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⁵⁾ 지하련은 1920년대 후반 동경 유학 당시 근우회 동경지회에서 활동했으며, 카프 동경지부 제1회 임시총회에서 임원으로 피선되기도 했다. 이 무렵 동경에서 활동하던 임화와 지하련이 첫 대면을 했다. 그리고 1935년 7월 신병 치료차 마산에 내려온 임화와 결혼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 지하련은 사회주의자인 오빠와 함께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에 참여할 정도로 열혈 사회주의자였다.⁶⁾

이런 지하련의 이력이 해방 전 발표된 소설에 반영되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이것은 지하련이 남성 사회주의자의 삶과 현실 인식의 실체를 누구보다 가깝게 목격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하련이 인식한 남성 중심의 사회주의란 어떤 형상이며, 우리는 그 구조를 통해 무엇을 학습해야할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 남성 사회주의자의 현실 인식에 젠더라는 전략을 추가했을 때 발생하는 효과는 무엇일까?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방 이전에 창작된 지하련의 소설

5) 사회주의자로서 지하련의 행적과 소설에 대한 연구로 허예슬, 「지하련 연구 - '여성 해방주의'와 '고독'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6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사회주의 활동가로서 지하련의 행적을 새롭게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하련 소설의 유형을 ‘운동가 남편 - 아내 서사’ ‘운동가 오빠 - 여동생 서사’로 규정한다. 이 논문은 허예슬의 연구를 참고하면서도 각각의 유형이 구체적인 현실과 어떻게 접점을 형성하는지에 주목하려고 한다.

6) 사회주의자로서 지하련의 이력과 임화와의 교류에 대해서는 박정선, 「임화와 마산」,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6집, 한국근대문학회, 2012; 허예슬, 위의 논문을 참조.

「결별」(1940), 「가을」(1941), 「산길」(1942), 「체향초」(1941), 「종매」(1942), 「양」(1942)을 대상으로 찾고자 한다. 2장에서는 ‘남편-아내 서사’로 분류된 「결별」, 「가을」, 「산길」을 ‘여성 연대 서사’로 살펴볼 것이다. ‘남편-아내’라는 표면적 구조 아래에서 유동하고 있는 여성 연대의 ‘사랑’이라는 감정의 함의를 논증함으로써 계급과 젠더가 교차한다는 것의 의미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3장에서는 ‘오빠-여동생 서사’로 평가되는 「체향초」, 「종매」, 「양」을 ‘자연’과 ‘동정’ 개념으로 분석할 것이다. 자연에 대한 오빠와 여동생의 인식 차이와 오빠에 대한 여동생의 동정에서 발견되는 지하련의 인식론은 1940년대 초반 제국 일본의 논리에 포섭된 남성 사회주의자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성 사회주의자의 젠더 전략을 확인하는 일은 지식인 주체와 노동자 대중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을 넘어서 바로 그 프레임이 구축되는 권력의 문제에 다가서는 일이다. 이때의 권력은 제국 일본이면서 동시에 남성 사회주의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하련의 소설은 환기하고 있다.

II. 여성 연대 서사에 나타난 ‘사랑’

당연한 말이지만 인간의 정동은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 정동을 “의식화된 삶 아래나 옆에 있거나, 또는 아예 그것과는 전체적으로 다른 내장의 힘들, 즉 정서 너머에 있기를 고집하는 생명력에 우리가 부여하는 이름이다.”⁷⁾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정동은 법이나 제도들에 의한

7)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외, 최성희 외 옮김, 『정동이론』, 갈무리, 2015.

정동-됨의 영역과 그런 정서 너머를 지향하는 정동-하기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식적으로 말하자면, 전자는 정치적 목적과 연관되어 나의 일상을 구속하며 후자는 바로 그 일상을 극복하려는 능동적 감정이 된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조선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간을 거쳐서 전쟁이라는 명확한 현실에 따른 비상시의 문법을 확립했다. 제국은 창씨개명, 징병제 실시 등으로 대표되는 법 체제의 변경을 통해 ‘사’를 ‘공’의 영역으로 소환시키고자 했다.⁸⁾ 자기의 가장 내밀한 영역인 감정까지도 공적 목적을 위해 동원되던 시기에 남성 사회주의자들은 침묵하거나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는 감정을 활용하여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는 방식을 취했다.⁹⁾ 남성 사회주의자들의 전략에서 주체의 내면이 의미가 있는 것은 공적 영역과 연결되는 순간뿐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공/사 이분법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하련이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1940년대는 남성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라는 언어로 발언하기 불가능한 시대였음이 새삼 강조

p.16.

8) 일제 말기 식민지/제국 체제와 삶과 정치의 변화에 대해서는 차승기, 『비상시의 문/법』, 그린비, 2016.

9) 가령 임화의 경우 1933년 물 논쟁 이후 제국의 법 - 미디어 체제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주체의 욕망과 의지에 주목했으며, 김남천은 고발문학론, 모랄론 등으로 이어지며 자기의 내면과 양심의 문제에 천착한다. 1930년대 중후반 제국의 시간에 대한 임화와 김남천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차승기, 「폐허로부터의 비전: 일제말기 김남천의 소설론과 탈식민의 계기」, 『민족문학사연구』 제61집, 민족문학사학회, 2016; 최병구, 「비평정신과 테크놀로지 - 식민지 시기 임화의 근대성 인식과 성찰」, 『구보학보』 제21집, 구보학회, 2019; 이행미, 「일제말기 김남천 문학에 나타난 풍속의 의미」,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1집, 한국근대문학회, 2020 등

될 필요가 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남성 사회주의자들은 주체의 정념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공적 세계로 진입하기를 시도했지만, 그 의미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의 주변에는 시선을 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바로 이 지점에 부부 관계를 중심에 놓고 창작된 지하련의 소설 「결별」, 「가을」, 「산길」이 위치한다. 세 편의 소설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대비되는 위치와 각각의 욕망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관심을 두려는 것은 남편을 공유하는 여성 연대의 모습이다.

「가을」은 죽은 아내의 친구 정예에 대한 석재의 시선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아내는 무슨 이유인지 죽기 전부터 정예를 석재에게 소개했다. 정예는 결혼과 이혼을 한 뒤에 몇 번의 연애를 했다는 소문의 주인공이다. 그런 정예에 대한 석재의 시선은 이중적이다. 아내를 향한 미안함과 그녀의 좋지 못한 소문에 거리를 두지만, 소설이 전개되는 내내 석재는 정예를 향해 말할 수 없는 야릇한 시선을 보낸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정예의 과거는 단지 ‘소문’으로만 떠돌 뿐 단 하나도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 정예는 친구가 살아 있을 때와 죽고 난 뒤에 석재에게 만남을 요청했다. 하지만 석재는 그녀와 대화를 회피하며 정예가 “서양 여자들에게 많다는 무도병(舞蹈病)이란 병처럼 이 여자에게도 무슨 고백병(告白病)이라는 게 있지 않나”¹⁰⁾ 생각할 뿐이다.

표면적으로 석재와 정예는 ‘가족 이데올로기’에 예속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석재는 아내와 아이를 의식하며 정예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했고, 정예는 유부남이란 석재의 처지를 의식하며 좋아하는 자신의 마

10) 지하련, 「가을」, 『조광』, 1941.11; 서정자 편, 『지하련 전집』, 푸른사상, 2004, p.60. 이하 지하련 소설의 인용은 원출처와 『전집』, 페이지 수만을 표시하도록 하겠다. 본문 인용의 경우에는 본문에 페이지 수만 표시하도록 하겠다.

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 석재는 정예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며 결말 직전까지 거리를 유지하지만, 정예는 친구가 살아 있을 때에도 석재를 바깥으로 불러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석재의 아내는 직접 정예를 석재에게 소개했다.

정예와 석재의 아내가 ‘석재’를 공유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들이 공유한 감정을 어떻게 이해 해할 수 있을까? 소설의 마지막에서 정예와 헤어진 석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다.

(정예는 제 말대로 흉악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거지는 아니다. 허다한 여자가 한껏 비굴함으로 겨우 흉악한 것을 면하는 거라면 여자란 영원히 아름답지 말란 법일까?)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다음 순간 눈앞엔 어느 거지 같은 여자보다도 더 거지 같은 탄 것이 싸늘한 가을 바람과 함께 그의 얼굴에 부딪혔다.¹¹⁾

인용문은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정예에 대한 공감과 끝까지 솔직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자책감의 표현이다. 여기서 가족 이데올로기의 구조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근대 가족은 공/사 영역 분리와 사랑의 이데올로기로 포장된다. 생계부양자로서 남성과 미성숙한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이란 이분법적 도식을 중심으로 한 핵가족 모델은 산업 사회의 진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단위이다.¹²⁾ 이 구조를 해체하는 주체에게 부도덕이란 비난과 법적제재가 가해졌음은 물론이다. 석재는 자신의 내면을 가까스로 드러낸 정예가 비굴함으로 흉악함을 면했다고

11) 지하련, 「가을」, 『조광』, 1941.11; 『전집』, p.62.

12) 주디스 스테이지, 유강은 옮김, 「가족은 죽었다, 새로운 가족 만세!」, 『사회주의 페미니즘』, 따비, 2019.

하지만, 그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정예의 모습에서 자본주의 산업 사회의 법 체제를 위반하는 욕망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사회주의자의 욕망에 가까운 것이 될 것이다. 요컨대 정예와 아내는 석재를 공유함으로써 가족 이데올로기의 구조를 넘어서고자 한 것이다.

가족에 결박되어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남성과 그 구조를 내파하는 여성 연대는 「산길」에서는 조금 다르게 변주된다. 「산길」의 순재는 친구 연희가 자신의 남편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순재는 남편에 대한 분노와 연희에 대한 원망 사이에서 갈등한다. 무엇보다 남편을 이해하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야속하기만 하다. 「가을」의 정예와 다르게 연희는 너무나 당당하게 남편을 사랑한다고 순재에게 말한다. 그러나 순재는 연희를 원망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 순재는 “안해란 훗신 늙고 파렴치한 겁니다”(p.102)라며 아내라는 자기의 상황을 직시하는 동시에 남편을 사랑한다는 연희 말에서 감지되는 절박감에 공감한다. 순재는 아내라는 역할이 자기를 규정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감정을 감지하면서도 그것을 벗어나려는 욕망을 품고 있는 것이다.

이런 순재의 욕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순재는 아내/남편이라는 규범을 구획하는 젠더 질서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그 규범성을 위반하는 연희의 절박감에 그녀를 이해한다. 이렇게 본다면 차라리 순재와 연희는 동질감을 공유한 여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비록 한 남성을 공유한 연적(戀敵)으로 만나게 되었지만, 그들은 남편이 “자기 생활의 질서를 소중히 아는 사람”(p.103)이란 인식을 공유했으며,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강한 지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순재는 가정을 지키려는 남편의 모습에 안도감을 느끼기는커녕, 모욕감을 느끼고 연희와 같은 자유로운 선택을 꿈꾼다. 생활의 질서를 지키는 남편의 성격은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한편으

론 남편의 마음은 사적영역(가족)과 공적영역의 구획이 명확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연희와 순재의 연대란 바로 이와 같은 남성의 이분법적 현실 인식에의 대응이다. 연희는 순재를 직접 찾아옴으로써 실천했다면, 순재는 남편과 대화를 나누며 무의식적으로 드러낸다. 남편은 순재에게 실수해본 적 있는지, 연애를 생각해본 적 있는지를 묻는다. 자신의 행위를 실수로 무마하려는 것이다. 이어지는 이들의 대화는 다음과 같았다.

「그래 실수를 했던 말예요?」 하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이 훨씬 조소적인 말을 남편이 어떻게 받는 것인지

「그럼 연애라야만 쓰오?」하고 마조 보면서, 이번엔 훨씬 혼자서 말처럼

「아무 것이고 해서는 못쓰는 겁니다.」했다.

「못쓰는 일을 왜 했어요?」

「사과를 해요?」

「마졌오-」

순재는 뭔지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무슨 까닭으로 이 순간 연희를 생각해 냈는지

「연희가 개가 무슨 봉변이겠어요 ... 당신 개한테도 나한테도 나쁜 사람이예요」¹³⁾

위 대화에서 확인되듯 남편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한다. 소설에서 명확하진 않지만, 남편은 연희를 성적대상으로 생각하고 연애를 했을 것이다. 부부 관계로 묶여 있는 순재와 ‘연애’ 대상인 연희라는 구분이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사회주의자로서 가족 이데올로기를 벗어나고자 했다면 연희에게 충실했어

13) 지하런, 「산길」, 『춘추』, 1942.3; 『전집』, p.108.

야 했으며, 가족을 지키려는 가장으로서 본분에 충실하고자 했다면 연희와 연애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점에서 남편은 순재와 연희에게 잘못을 한 것이다. 차라리 규범을 위반했던 연희와 이를 이해하고 있는 순재가 조금 더 사회주의자의 인식에 가까운 것이다. 적어도 여성 연대는 “가족의 이념형”이 풍기는 그릇된 젠더 중립성¹⁴⁾을 벗어던지고자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설의 결말에서 순재는 남편과 화해한다. 이제 순재의 눈에 남편은 완벽한 외모에 꺼릴 것 하나 없는 사람이다. 남편은 연애는 “분별 있는 사람이 오래 머물 순 없는 일”이며 “어른들이란 훨씬 다른 것에 많은 시간이 분주해야 허니까”(p.109)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이 대목은 가정에 결박된 순재의 한계가 아니라 남편의 변하지 않는 이분법적 현실 인식에 대한 강조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순재는 끝까지 연희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했다”(p.110)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끝까지 정직하지 못한 남편과 대비시키며 연희의 정직함에 내포된 젠더 인식의 정치적 효과를 강조한 것이다.

연희와 순재의 각기 다른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여성 연대의 주체로 바라볼 때 남성 주체의 위치가 분명해진다. 「결별」은 가족이 구성되는 경제적 메커니즘 속에서 여성의 위치를 드러내며 남성성의 실체를 확인시켜준다. 「결별」의 주인공 형예는 바깥일을 우선하며 아내에게는 가부장의 모습을 보이는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는 여성이다. 소설은 형예가 친구 정희의 혼인 잔치에 놀러 가서 벌어진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형예와 정희는 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나기로 약속할 만큼 가족 관계가 얼마나 여성에게 억압적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14) 주디스 스테이시, 유강은 옮김, 앞의 책, p.203.

인물이다. 그래서 형예는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며 살림을 하던 친구를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형예는 정희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과 함께 온천에 가던 명순이와 마주치고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웬일로 이제 이렇게 긴-담을 끼고 호젓이 생각하노라니 그 귀엽고…꿈은 생각을 담옥 담옥 지냈던 죽은 숙히라든가, 남편과 이혼을 하고 지금은 남포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른다는 지순이라든가 또 계봉이나 이제 형예 저 같은 사람보다도 명순이 같은 애들이 훨씬 대견하고 그저 그만이면 그만으로 어찌 훌륭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¹⁵⁾

인용문에서 형예는 자신보다 남편의 그늘에서 살림을 하는 명순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가족을 이루었다면 「산길」의 순재처럼 남편을 이해하며 감정을 적절히 억누르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남편에게 기대어 사는 편이 올바르다는 판단은 가족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경제 원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결별」에서도 남편을 공유하려는 여성의 욕망이 등장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잔치가 끝나고 정희는 남편과 함께 형예를 집 앞까지 데려다준다. 작가는 이런 정희의 감정을 “제가 좋아하는 내가, 제가 좋아하는 그이와 친했으면…하는”(p.82) 마음으로 정의한다. 정희에게 사랑은 타인과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감정이 아니라 좋은 것을 타인과 공유하는 정념인 셈이다.

정희의 사랑은 형예 남편의 사랑과 비교할 때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

15) 지하련, 「결별」, 『문장』, 1940.12; 『전집』, pp.67-68.

진다. 형예의 남편은 형예가 정희 남편 이야기를 하자 질투하기 시작한다. 결국 형예는 “왜 동무 남편임 좋건 좋다고 허는 게, 뭐가 어땡고, 왜 나뿌담”(p.88)이라며 폭발한다. 큰 일을 한다고 늘 바깥으로 나가는 남편이지만, 누구보다 소유욕이 큰 남편을 두고 형예는 고독을 느낀다. 공/사의 명확한 경계 속에서 사랑이란 감정을 사적영역에 한정시킨 남편의 모습은 여성 주체가 연대를 통해 공유한 사랑이란 감정과 비교할 때 그 한계가 명백하다. 남편의 사랑이 소유라는 자본주의의 속성에 근거한 것이라면 여성 연대를 가능하게 만든 사랑은 공통적인 것의 구성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랑이기 때문이다.¹⁶⁾

이처럼 세 편의 소설은 가족 이데올로기에 간혀 있지만, 그 규범성을 내파하려는 의지를 가진 여성 주체를 전면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은 가족이 상징하는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경계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비록 이들은 소설이 전개되는 동안 공/사의 경계에서 머뭇거리지만, 궁극적으로 그녀들은 여성 연대를 구축하면서 경계를 넘어서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반면 남성 주체들은 하나 같이 경계 자체를 의식하지 못한 채 습관처럼 움직일 뿐이다. 사랑해서 연애하고 다시 아내에게 충실하는 남성의 모습에서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한 가부장의 면모를 찾기란 어렵지 않다. 여성 연대는 바로 이런 남성 가부장의 모습과 현실 인식이 가진 한계를 드러내는 효과를 거둔 것이다.

16) 네그리와 하트는 개인의 특이성이 사유화되지 않고 공유되기 위한 감정으로써 ‘사랑’에 주목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사유화 과정에 맞서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공통적인 것’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자 특이성들이 마주치는 과정으로 ‘사랑’을 사유한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정남영·윤영광 옮김, 『공통체』, 사월의책, 2014, pp.260-273.

III. 자연과 동정, 여성 사회주의자의 현실 인식

이번 장에서 살펴볼 「채향초」, 「종매」, 「양」은 주의자 오빠와 여동생의 서사이다. 선행연구가 분석한 바와 같이 이들 소설은 ‘여성’을 매개로 한 남성 연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성을 타자화함으로써 가능한 남성 연대는 사회주의자 연대가 가진 폭력성을 환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주목하려는 것은 작가가 남성 연대의 서사를 환기하며 넘어서고자 할 때 드러나는 자연에 대한 인식과 동정이란 감정의 함의이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세 편 소설의 공통적 배경이 자연이라는 사실이다. 마르크스의 초기 저작과 후기 저작의 인식론적 단절은 철학적 인간학에서 자본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비판으로의 전회라는 시각으로 설명되었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전 생애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이 자연을 소유의 대상으로 여기며 발전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인식이다.¹⁷⁾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마르크스의 지속적인 관심에 초점을 둘 때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문명/자연, 여성/남성 등과 같은 이분법이다. 이 분법적 도식에 간혀 있는 남성 사회주의자의 시각에서 문명 발전을 위해 개발해야 하는 대상으로서 자연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자연에 머무르지 않고 개발(노동) 현장에 머무르는 것이 주체로서 확고한 의식의 표현이 된다. 반면 자연에 초점을 둔다는 것은 그간의 이분법을 넘어서 그 경계가 만들어지는 맥락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다. 자연을 여성성의 근간으로 규정지었던 에코 페미니즘 수준의 논의가 아니라 자연과 문화를 연결하는 힘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자연’에 주목해야

17) 사이토 고헤이, 추선영 옮김, 『마르크스 생태사회주의』, 두 번째판, 2020, 1장 논의를 참조.

한다.

「체향초」의 주인공 삼히는 신병을 핑계로 어린 시절 함께 놀던 오빠가 있는 시골 마을로 간다. 오빠는 시골에서 묘목을 심거나 돼지를 키우는 생활을 하고 있다. 과거 사회주의자로 활동했던 오빠는 낙향 후 자연 속에서 일을 하지만 만족하지 못한다. 자신이 자랑스럽게 노동을 한다는 삼히의 말에 태일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비판한다. 오빠의 이런 태도는 다음과 같은 인식론에 토대를 둔 것이었다.

“「태일군 같은 사람은 너허군 다르지만, 아무튼 나를 거짓으로 산다고 한다. 하지만 내가 큰집 사랑에서 단지 나 혼자 누어만 있든 때와는 달라서, 이리로 와서부터는 첫째 나와 상관되는, 내가 간섭하지 않으면 안될 내 소유물(所有物), 즉 내게 따른 것들이 있으니, 내게도 생활(生活)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나의 “살림”의 모습이 이제 내게 “태”라는 것으로 느껴진 모양인데, 이러한 “태” 직 “자세”라는 것이 보는 사람에게 불쾌를 줄 정도라면, 아무튼 나로서는 네가 말하는 그레도를 두고 있을 수밖에 어데 다른 도리가 있니?» 오라버니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심한 얼굴로 삼히를 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내가 태일군 말을 옳게 역이는 것은 첫째, 내게 아이가 없고, 또 흙에는 소문(所聞)이 없고, 인간(人間)이 있지를 않으니까, 말하자면 이건 생활이라기보다도, 단지 내가 살아 있다는 것뿐이겠는데 본시 이러한 곳엔 아까 네게 말한 그런 “자랑”이란 건 있지 않을 게고, …(하략)」¹⁸⁾

인용문에서 오빠는 일하는 ‘자세’만을 보여준다는 삼히의 말을 인정하고 태일의 말을 인용하며 자책한다. 삼히는 흙에서 노동하는 오빠의 모습이 진짜 자랑스러웠지만, 오빠의 내면은 동생이 자신을 비판한다고

18) 지하련, 「체향초」, 『문장』, 1941.3; 『전집』, pp.117-118.

받아들인 것이다. 다시 말해 노동하는 ‘포즈’라는 자기 비판은 자연에서 일하는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남성성에 대한 오빠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빠는 ‘아이’가 없어서 자신의 삶이 거짓이라는 태일의 말을 인정한다. 남성의 노동력은 상품을 만들어 임금을 받는 도구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소외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남성의 경제력은 아내와 아이의 통치자로서 가부장이 될 수 있는 결정적 조건이다. 반면 여성의 노동력은 아이 돌봄이라는 비경제 활동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바로 이런 익숙한 남성 사회주의자의 내면을 가진 오빠는 자연 속에서의 노동을 비경제 활동이라고 치부한 것이다.

오빠는 태일을 “생명과, 육체와, 또 훌륭한 ‘사나이’란 자랑”(p.136)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모하며, “「이런 건 다 너이들 “적은 창조물”들이 알 수는 없을 거다-」”(p.143)라며 여성을 비하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드러낸다. 산업 노동하는 남성/가사 노동하는 여성이란 위계적 시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나올 수 없는 태도이다. 하지만 삼히는 “오라버니의 모습에 오히려 동정”(p.149)을 느낀다. 여전히 젠더 이분법의 세계를 살아가는 오빠의 모습에서 연민을 느낀 것이다.

이 대목에서 남성 사회주의자들의 한계를 비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지점은 공적활동이 불가능한 시점에서 동정이란 감정을 매개로 현실에 개입하려는 지하련 소설의 전략을 파악하는 일이다. 우선 카프 시기 남성 사회주의자들이 ‘동정’을 매개로 현실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카프 시기 남성 사회주의자의 비평과 소설에서 가난에 고통 받는 민중들에 대한 동정과 비애의 감정이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열의로 이어지는 장면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가난한 민중에 대한

남성 사회주의자의 동정은 곧바로 공적 활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공/사의 일치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때의 동정은 사적영역을 규율하는 젠더 위계에는 시선을 두지 않고 공적 활동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카프 시기 남성 작가의 소설에서 남성 사회주의자들의 연대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여성 인물의 연대가 가능했다는 사실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여성을 공적세계로 이끈 남성 주체란 대부분 공장 노동자이거나 지식인 주체였다. 노동자와 지식인이란 공적세계에 속한 주체와 가정이란 사적세계에 속한 여성이란 구도가 명확한 것이다. 이런 구도에서 동정은 의식 있는 공적주체의 감정이 된다.¹⁹⁾

그렇다면 지하련이 삼히라는 인물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여성의 동정이란 남성 사회주의자의 동정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 「종매」는 시골 사찰을 배경으로 석히의 시선에서 여동생 정원과 또 다른 남성 철재, 태식의 관계를 다룬다. 정원을 중심으로 세 명의 남성은 정원에 대한 애정이란 감정을 공유하지만, 소설에서 정원은 남성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작동할 뿐이다. 이 과정에서 석히는 정원과 철재의 관계가 이성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윤리적 올바름’을 작동시킨다.

이제 만일 누이와 청년의 사이가, 그 소위 연애편계가 아닌, 단순한 동정에 서나 혹은 한 소녀의 “감상”이 열거 놓은 사이라면, 이러한 동정에서나 혹은 한 소녀의 “감상”이 열거 놓은 사이라면, 이러한 동정이나 감상이, 반드시 “소녀의 세계”에만 있으란 법도 없는 것이며, 또한 제가 누이를 사랑할

19) 이에 대한 논의로는 이경재, 「한설야 소설에 나타난 여성 표상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38집, 현대소설학회, 2008; 손유경, 「빠라와 연애편지 - 일제 하 노동자소설에 나타난 노동조합의 의미」, 『현대문학의 연구』 제43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등을 참고.

바에야 누이가 동정하는 사람을 저도 동정해서 못쓰란 법도 없다. (중략)
(이렇게 몹시 알른 사람 앞에,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단 말인가-)하고, 생
각해 보는 것이었다. 좌우간 다 그만두고, 방금 원이 가엾다 생각하면 제일
간단했다. 만일 이러한 것을 “리해”라고 한다면, 이제 집안에선 자기 이외
아무도 원이를 리해하고 고아줄 사람은 없지 않은가 싶었다.²⁰⁾

인용문에서 석히는 ‘동정’이 여성의 감정일 뿐 아니라 남성의 감정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 석히의 시각에서 동정
은 “소녀의 세계”에서나 있는 감정이지만, 정원에 대한 애정이 남성도
동정할 수 있다는 합리화를 만들어 낸 것이다. 석히에게 동정이란 여성/
남성의 위계 구조 속에서 생겨난 감정인 셈이다. 이러한 석히의 동정은
이분법적 구도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카프 시기 남성 사회주
의자의 동정과 동일한 것이다. 또 「체향초」의 삼히가 오빠에게 느낀 동
정이 동정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이처럼 지하련의 소설은 동정을 공적-남성 주체의 감정에서 사적-여
성 주체의 감정으로 되돌린다. 남성의 동정이 자본가/노동자의 계급적
위계에서 생겨난 것이라면, 여성의 동정은 계급적 위계에 대한 젠더 인
식을 통해 형성된다. 다시 말해 사적-여성의 동정이란 남성/여성의 이
분법, 혹은 문명/자연의 이분법을 수행하는 남성 주체에 대한 감정이다.
1940년대 초반의 상황에서 여전히 과거의 인식론에 사로잡혀 있는 남
성 인물을 환기하며, 여성이 마주하는 폭력의 구체성을 상기시켜주는
것이기도 하다.

1940년대 제국 일본의 폭력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일상을 지배한 폭력은 지금까지 살펴 본 소설에서 등장하는 이

20) 지하련, 「종매」, 『도정』, 1942.4; 『전집』, p.166.

념과 행동이 불일치한 남성 사회주의자의 모습에서 생겨난 것이다. 1940년대 제국의 이념은 조선의 행복을 위한다고 했지만, 실제 조선 인민의 행복과 거리가 먼 정책이었다. 하지만 남성 사회주의자들은 문명/자연의 위계 구조를 고수하며 제국의 논리에 포섭되었다.²¹⁾ 제국 일본이 식민지 일상을 팔호치고 정치적 목적만을 강조했다, 남성 사회주의자들도 생활을 여성의 일로 치부한 채 공적활동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매」에서 석히는 서울에서 돈을 큰 돈을 벌어보겠다는 태식에게 ‘타락’할 거라는 경고를 한다. 자본을 쫓지 않는 행위를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익숙하다. 하지만 소설에서 묘사되는 석히의 모습이 단적으로 웅변하듯, 이런 윤리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행위만으로는 어떤 실천을 기대하기 어렵다. 실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감정이 사회와 맺고 있는 관계를 명민하게 인식해야 한다. 석히는 남성/여성, 문명/자연이란 젠더화된 위계 구조에 갇혀버린 인물로서 감정과 일상의 역학관계를 파악할 능력이 없었다. 1940년대 제국 일본의 ‘대동아’ 인식이 서양/동양이란 이분법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석히의 인식이 갖는 정치적 한계도 짐작할 수 있다.

「양」의 주인공 성재는 친구 정래와 함께 자연에서 살고 있다. 앞서의

21) 와타나베 나오키는 1940년대 임화의 평론을 통해 임화가 제국의 논리에 포섭된 모습을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와타나베 나오키, 「식민지 조선에서 <만주>담론과 정치적 무의식」, 『진단학보』 제107집, 진단학회, 2009를 참조. 이 논문에서 저자는 공장 노동자를 즐겨 묘사한 임화가 1940년대에 농촌과 흙에 주목한 이유는 일본의 개척문학의 영향이라고 진단한다. 즉 ‘자연’을 생산의 도구로 인식한 제국의 논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 시기 임화가 자연을 문명과 대비시키지 않고 자연/문명의 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식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소설과 마찬가지로 성재는 자연에서의 삶이 마땅치 않다. 「양」은 성재와 정래의 여동생 정인의 애정을 화두로 전개된다. 그런데 이 작품이 주목되는 것은 이제까지와 다르게 남성의 고독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정래와 성재는 ‘정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가 신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당신은 나보구 무턱대고 믿으라고 명령하지 않소? 그리고는 화해하라고, 타협하라고 명령하지 않소? 허지만 것처럼 고집하는 당신을 내가 어떻게 믿고 화해하냐 말이요-」 역시 성재가 무려본 말과는 다소 동떨어진 대답이었으나, 그는 한순간 기각 맥했다. 이것은 정래에게 하고 싶었던 자기의 말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뭘 고집했기에 허는 말이요-」 성재가 어이없어 이렇게 무렸는데도 정래는 조금도 주저하는 빛이 없이 「“고독”이요. 어떠한 평화도 욕망도 정열까지도 이곳에 드러오면 사라나지 못하는 고독이란 괴물이요」-하면서 「사람이 감동하지 않는단 건-아무 곳에도 격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실로 두려운 일일 겁니다.」-하였다.”²²⁾

인용문에서 남성 사회주의자들의 고독이란 자연으로 물러나 있기에 발생한 것이다. 다시 말해 남성의 고독은 도시 노동자의 모습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귀화하며 어떤 욕망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반면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여성 주체들의 고독은 바로 이런 남성 사회주의자의 모습 때문에 발생했다.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는 남성 사회주의자의 사유는 위선적 형태로 구체화 되며, 바로 그 주변의 여성 인물은 고독을 느끼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고독이 발생하는 이런 메커니즘은 각각 주체의 동정심에 내재된 현실 인식의 범주와 일치한다. 무엇보다 남성 사회주의자의 현실 인식은 언제나 당대의 지배 권력과

22) 지하련, 「양」, 『도정』, 1942.5; 『전집』, p.212.

맞닿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지하련은 일상과 분리된 채 정치적 목적만을 강조한 남성 사회주의자의 동정을 동정하며 1940년대 초반 제국 일본의 지배 전략까지 환기하고 있는 것이다.

IV. 계급과 젠더의 연결을 위해

지금까지 해방 이전 지하련의 소설을 살펴보았다. 그간 임화의 아내로 널리 알려진 지하련의 문학은 프로문학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재고할 것은 요청한다. 여기서 ‘기존의 시각’이란 발전론적 시각으로 프로문학을 인식했던 1990년대 운동사적 시각과 감성의 문제를 중요한 방법으로 내세웠던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시각을 포괄하는 것이다.

후자의 시각은 카프가 ‘동정’과 ‘비에’ 같은 감성을 중요한 자원 삼아서 혁명이란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고 주장한다. 남성 사회주의자들의 문학에서 발견되는 감정과 이성의 연쇄를 통한 변혁론을 읽어낸 것이다. 설득력 있는 논의였지만 결정적으로 ‘젠더’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프로문학의 젠더를 읽어낸다는 것은 단순히 여성 해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이분법적 현실구조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것이다. 「결별」, 「가을」, 「산길」은 ‘남성’을 공유한 여성 연대의 서사로 읽을 수 있다. 자본주의적 소유 개념에 따른 부부관계에서는 용납되기 어려운 여성 주체의 행위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족 이데올로기를 내파하는 효과를 거둔다는 것이다. 즉 경제력의 소유 여부로 남성/여성의 영역을 구분하고 돌봄 노동을 수행한 여성의 노동력을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한 인식

력이 가진 문제를 환기한다.

두 번째는 1940년대 제국의 통치 방식, 예컨대 개인의 감정까지도 공적영역으로 치환시켰던 전략을 혼든다는 것이다. 다소 비약을 감수하고 말하자면, 1940년대 일본은 개인의 사적 영역까지도 국가를 위해 동원했다. 가령 ‘충후부인’ 담론에서 여성의 공적의무를 촉구한 상황을 읽어 내기란 어렵지 않다. 이런 구조는 개인의 정념을 곧바로 공적세계로 이월하고자 한 남성 사회주의자들의 논리와 유사하다. 지하련의 소설은 근대 자본주의를 떠받치고 있던 가족 이데올로기를 뒤흔들면서 당대의 담론 구조에 개입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맥락은 지하련 소설의 젠더 전략이 함의하는 정치적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조금 더 부연될 필요가 있다. 「체향초」, 「종매」, 「양」은 ‘자연’에 대한 남성 사회주의자의 부정적 인식을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소설에서 남성 사회주의자들은 자연과 호흡하는 삶을 부끄럽게 여긴다. 원시 자연을 개간하여 생산력을 높이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일제 말기 사회주의자들의 친일 논리가 전쟁을 위한 생산력에 대한 강조를 끌어안으며 이루어진 상황을 기억해야 한다.²³⁾ 전쟁을 위해 생산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제국 일본의 논리에 남성 사회주의자들이 휩쓸린 이유는 계급주의를 생산과 노동을 중심으로 사고했기 때문이다. 일제 말기 지하련의 소설은 이런 계급 중심주의를 지적하며 일상에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지하련의 소설은 계급과 젠더를 연결하며 일상에서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제도의 구조적 폭력성을 환기하는 것이다.

23) 일제 말기 제국의 생산력주의와 사회주의 지식인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윤대석, 「일제 말기 재난에 대한 생산력주의/생산주의의 대응」, 『구보학보』 제10집, 구보학회, 2014를 참고.

지하련이 작품 활동을 하던 시기는 남성 사회주의자들의 전향 혹은 현실로부터의 후퇴가 상당 부분 완료된 이후이다. 이 시기 지하련의 소설은 남성 사회주의자들의 문학과 전략을 달리하여 현실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일상과 거리가 있는 혁명이 아니라 일상의 혁명을 추구한 지하련 문학의 문제의식이 갖는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지하련 소설은 변화란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익숙한 일상을 비틀어볼 때 생겨난다는 진실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서정자 편, 『지하런 전집』, 푸른사상, 2004.

〈논문 및 단행본〉

- 권성우, 「해방 직후 진보적 지식인 소설의 두 가지 양상」, 『우리문학연구』 제40집, 우리문학회, 2013, pp.299-330.
- 김주리, 「신여성 자아의 모방 욕망과 ‘다시쓰기’의 서사전략」, 『비평문학』 30집, 한국비평문학회, 2008, pp.249-273.
- 도나 해러웨이, 황희선 옮김, 『해러웨이 선언문』, 책세상, 2019.
-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외, 최성희 외 옮김, 『정동이론』, 갈무리, 2015.
- 박정선, 「임화와 마산」,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6집, 한국근대문학회, 2012, pp.167-204.
- 박찬효, 「지하런의 작품에 나타난 신여성의 연애 양상과 여성성」, 『여성학논집』 제25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8, pp.31-59.
- 사이토 고헤이, 추선영 옮김, 『마르크스 생태사회주의』, 두 번째테제, 2020.
- 서승희, 「식민지 여성 작가의 글쓰기와 여성성의 표상」, 『한국문학논총』 제72집, 한국문학회, 2016, pp.261-287.
- 서영인, 「제국의 논리와 여성주체」, 『배달말』 55, 배달말학회, 2014, pp.339-363.
- 손유경, 「해방기 진보의 개념과 감각」, 『현대문학의 연구』 제49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pp.147-174.
- _____, 「‘여류’의 교류」, 『현대문학연구』 제51집, 현대문학회, 2017, pp.385-419.
-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정남영·윤영광 옮김, 『공통체』, 사월의책, 2014.
- 와나타베 나오키, 「식민지 조선에서 〈만주〉담론과 정치적 무의식」, 『진단학보』 제107집, 진단학회, 2009, pp.277-297.
- 윤대석, 「일제 말기 재난에 대한 생산력주의/생산주의의 대응」, 『구보학보』 제10집, 구보학회, 2014, pp.187-205.
- 이민영, 「발화하는 여성들과 국민 되기의 서사」,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7집, 한국근대문학회, 2016, pp.263-294.
- 차승기, 『비상시의 문/법』, 그린비, 2016.
- 허예슬, 「지하런 연구」, 『여성문학연구』 제46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pp.291-311.

Abstract

Reality Perception and Gender Strategies in Ji Ha-Lyon's Novels

Choi, Byoung-goo

This article examines the perception of reality and gender strategies represented in Ji Ha-Lyon's novels in the colonial period. First, "Kyul-byul", "Kaeul", and "Sangil" we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arrative of women's solidarity. These works are centered on marital relations, but women share men and pursue women's solidarity. It is not an ownership-based marital relationship, but a love that connects individuals' peculiarities to transcend family ideology. Next, "Chahyang-cho" "Jongmae" and "Yang" direct attention to women who sympathize with male socialists trapped in the dichotomy of civilization and nature. The sympathy of women found in these works critically evokes the perception of male socialists with structural similarities to the dichotomous perception of imperial Japan and attempts to rebuild the public/private division. In this way, Ji Ha-Lyon reveals imperial-male violence by focusing on the daily lives of female subjects.

Key Words : Ji Ha-Lyon, Lim Hwa, Sympathy, Family ideology, Nature, Public sphere, Private Sphere

최병구

소속 : 경상국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전자우편 : baius@gnu.ac.kr

이 논문은 2021년 11월 25일 투고되어
2021년 12월 2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1년 12월 28일 게재 확정됨.